

예수교연합성결회

#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재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http://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회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김성덕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황금란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식

지교회 교역자/ 문대규 정철수 이행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찬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한진범, 김은주, 김종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사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즈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영언,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버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핀: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자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이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투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이기세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준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국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영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대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승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혁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렬 손영락 윤부열  
박중웅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이교순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영욱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채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원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	주 악
기 원	.....	사 회 자
* 개회찬송	..... 52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 48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	다 같 이
찬 송	..... 512장	다 같 이
기 도	.....	이미경 목사
성경봉독	..... 갈라디아서 5:19~21	사 회 자
찬 양	..... 주 날 인도하네/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 3차 영훈육(6)	당회장님
기 도	.....	다 같 이
환자기도	..... 영상	당회장님
찬 송	..... 만민 찬양 195장	다 같 이
헌 금	.....	다 같 이
광 고	.....	사 회 자
봉헌기도	.....	사 회 자
새교우환영	.....	사 회 자
* 축 도	.....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안성현 목사

대표기도	최영신 전도사
성경봉독	욥기 2:1~13, 3:1~12/ 사회자
찬양	살아 계신 주/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이수희 집사 & 이해경 집사
설교	욥기 강해(4)-욥의 원망과 탄식/ 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

##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오상록 권사
성경봉독	창세기 50:19~21/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조수열 목사

##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정진영 목사

대표기도	차전환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3:14~22/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28)-라오디게아 교회②/ 당회장님

## 2-8회 18차 작성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3월 7일(월) ~ 3월 27일(주일)  
주제/ 2022년 기도제목, 성전이전, 은사집회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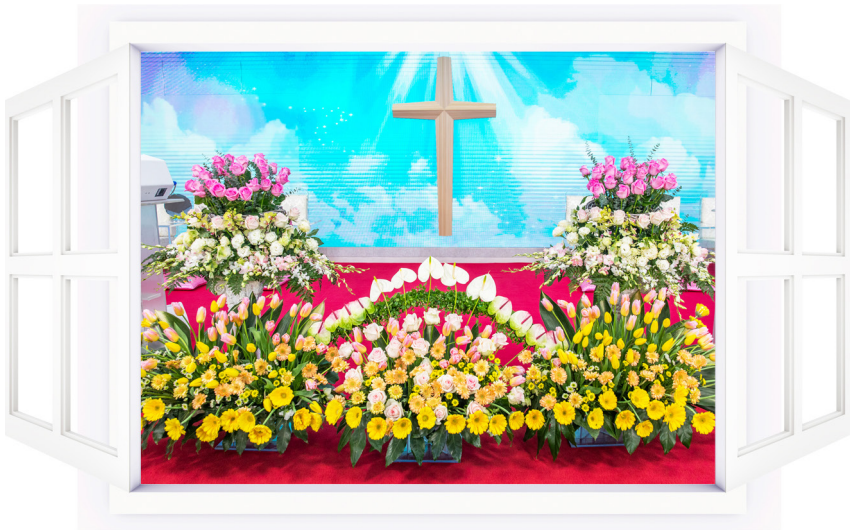
## 새벽 예배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에 협조하기 위하여 추후 공지 시 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조수열 목사	김진홍 장로
주일 저녁예배	장성식 목사	서덕분 전도사
수요 예배	노영진 목사	오인숙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임학영 목사	이미영 목사

##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3차 영혼육 (5)  
 본 문 : 갈라디아서 5:19~21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들 중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과 분리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생명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충성과 열심, 혹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녕히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지요.

우리가 참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로 찬양한다 해도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고백도 진실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며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 1. 시기

‘시기’는 자신보다 남이 낫다고 여길 때 마음이 요동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상대를 멀리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투기가 되는데, 이런 시기와 투기로 인해 상대를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행함이 나오게 되지요. 악의에 찬 분냄이 나오기도 하고, 분쟁하고 당 짓는 일도 생기며 살인도 나옵니다.

시기라는 하나의 근본 뿌리에서부터 투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파생되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는 자신의 영혼을 갇아먹는 참으로 추한 죄악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한 말씀처럼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잘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뼈가 썩는 고통을 받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은 자매 사이인데도 서로 시기하여 다투며 남편인 야곱까지 힘들게 합니다(창 30:1). 이런 다툼이 나중에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지요. 곧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다른 열 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린 동생을 이방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한 핏줄인 동생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무정함이 바로 시기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결국 근본 원인은 시기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는데, 시기가 미움을 일으키고 결국 살인까지 낳는 사례가 예나 지금이나 드물지 않은 것입니다.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의 속성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잘되고 사랑받는 것일까?’ 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더 나아가 상대가 미워지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고, 그 행복을 짓밟고 싶어 합니다.

상대의 행복을 자신과 비교하며 마음이 상하는 것도 그 근본은 시기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절망하거나 자신에 대해 낙담해 버리기도 하지요.

특히 나이나 신앙의 경력이 비슷하거나 비슷한 사명을 갖고 있는 비슷한 대상에 대해 그러기가 더 쉽습니다.

시기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행복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칭찬을 받는다면, “내 아들, 내 딸은 이런 결점이 있는데 칭찬하네” 하고 불편해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자녀는 저렇게 칭찬받는데 나는 칭찬받지도 못하네” 하며 마음 아파하시겠는지요? 그런 생각이 없이 기쁘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자녀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해도 사랑을 받으니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자녀일 때, 내 가족일 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감사하는 것이 영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통하여 서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았지요.

사실, 육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원수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의 왕위가 자신에게 계승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자기 왕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도우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그를 격려합니다(삼상 23:16~17). 남이 좋은 것을 취하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행복하며, 남이 고통을 받으면 나도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 2. 분냄

어떤 사람은 분을 내면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 다윗을 심히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반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사랑하여 어찌하든 살리고자 애를 썼지요.

하루는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피신시켰는데 이를 안 사울이 심히 노해 요나단에게 악을 발합니다(삼상 20:30). 그럼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자 단창을 던져 치려 하지요. 자신의 아내와 대를 이을 아들을 패역한 말로 욕하고 아들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니 이것만 보아도 사울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혈기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도 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속으로 꾀꾀 눌러 참는 것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속에 쌓아 둔 것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혈기의 뿌리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혈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짜증을 내고 분을 내었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잠시 혈기를 냈다 해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혈기를 벗어 버리면서 변화되어 나가면 되지요.

그러나 크든 작든, 분냄이라는 죄성이 있으면 사망으로 가는 큰 육체의 일로 나와질 수 있기에 혈기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분내는 것이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또 사울과 같이 권세가 있어 마음대로 분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결국 사울과 같은 악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는 사소한 것이라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혈기를 내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찌해서 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악이 있고 혈기가 있기에 분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온유한 사람은 상대가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서 분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의분은 육체의 일인 분냄과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책망하시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엮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의로운 분냄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분냄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것이 아니

지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 가운데서가 아닌 자녀가 잘못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사랑하지만 짐짓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육체의 일과는 다릅니다(잠 13:24).

### 3. 당 짓는 것과 분리함

당 짓는 것은 전체와 하나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전체의 흐름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나뉘고 다른 무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무리에서 나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끼리 더 친하다거나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므로 이에 대해 육체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무리를 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공격하기도 하지요. 수군수군, 비방하며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심히 분쟁하고 배척하는 일들도 생기지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한 말씀처럼, 자기 소욕을 쫓아 나뉘었기 때문에 지혜를 배척하고 비진리를 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유익을 쫓아 당을 짓고 분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 즉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το 마음먹은 순간부터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하지요. 마침내 자기편으로 포섭한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궤계를 꾸며 당을 짓고 분리한 압살롬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니 아무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과, 누구과 하면서 편을 가르고 분쟁하며 주의 종과 다른 성도들을 판단 정죄합니다. 이렇게 당을 짓고 다투다 보면 나중에는 분리하여 나가기도 하지요.

선교회 안에서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서 머리로 세웠다면 그가 조금 부족함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 해도 일단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이 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 물들어 양심이 무뎠지고, 참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할 때마다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하며 신속하게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시며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 (3) - 욥의 1차 시험

본 문 : 욥기 1:13~22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심으로 욥에게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욥이 축복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욥의 소유물을 거두어 시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하시며 욥의 소유물 전부를 사단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욥의 1차 시험

어느 날, 욥의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종이가 와서 욥에게 고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일을 하던 하인들도 죽였다는 것입니다(욥 1:15).

이 소식을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비보를 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욥 1:16).

욥의 이러한 재앙은 오늘날 열심히 돈을 벌어 큰 집과 공장을 지었으나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거나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풍이나 불을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고 공의를 어겼기 때문에 그만한 재앙이 오는 것이지요. 천재지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지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성령님이 미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가뭄이나 태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작물을 심어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욥에게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한 종이 재앙에서 지킴 받아서 소식을 전하러 왔지요.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악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욥 1:17).

여기서 “세 떼를 지었다”는 것은 사단이 계획적으로 역사한 것임을 말해 줍니

다. 즉 갈대아 사람들이 미리 의논하여 “우리가 떼를 셋으로 나누어서 여기저기를 치고 재물을 빼앗자.” 계획했다가 실행해 옮긴 것이지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당해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고합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실 때 대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욥 1:18~19).

기둥이란 중요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 네 모퉁이를 쳤다는 것은 욥에게 가장 중요한 대들보 같은 존재인 자녀들을 쳤다는 뜻입니다.

## 2.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욥

재산이야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자녀를 잃으면 다시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욥과 같은 처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원망하거나 땅을 치며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정직했던 욥은 불평불만 대신에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20~22)

겹옷을 찢은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자기의 부족하며 약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혹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내 능력으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요 재산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덕이 부족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식들을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키우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과 슬픔까지 나타내어 겹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의 자세이지요.

우리가 온전히 악에서 떠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만이나 자아는 죽어집니다. 내 안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설령 자신의 소유를 다 거둬 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앞선다는 것과, 위라는 것, 지위가 높다는 것 등이지요. 이처럼 남자에게 머리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머리털을 밀으로써 “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도로 거둬 가셨으니 나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는 구약시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었습니다. 욥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대한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소유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단의 송사는 옳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경배했으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순전하고 정직함이 진실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3. 욥의 오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욥의 고백 속에는 “주신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욥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데도 이유가 있고 거두어 가시는 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오해가 담긴 고백이지요.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이 몇 차례 있으셨지만 다 감사함으로 온전히 통과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 한번은 당회장님이 신학교 방학을 맞아 기도원에 다녀오셨는데 초등학교생이던 큰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살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 상황이었지요.

또 둘째 딸은 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이 퉁퉁 붓고 입안은 너털너털하게 찢어지고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인 제가 어떤 고등학교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건 모두 주위 사람들이 크게 염려하며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당회장님께서는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염려나 서운함, 원망 같은 감정은 조금도 없으셨고 변함없이 감사와 믿음의 고

백을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지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큰딸은 온몸에 난 부스럼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해졌고, 둘째 딸 역시 일주일도 안 되어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해졌지요. 셋째 딸인 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거짓말처럼 의식이 돌아와서 수요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저와 가족들에게 더 큰 믿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개혁 초기에는, 당회장님의 어린 세 딸과 청년 한 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새 연탄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간에 당한 큰 사고였지만 당회장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원망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단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딸들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청년만은 양 떼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지요.

당회장님의 이러한 고백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당회장님의 기도로 네 사람 다 차례로 깨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한 당회장님께서 이를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탄가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고, 무생물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나 연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은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사단이 송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시험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 화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시험이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욥은 자신이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깊은 본성 속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케 하여 축복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 올 때 나를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에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새기고 인내하며,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뤄 드림으로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읽을 말씀 / 마태복음 27:29~30

외울 말씀 / 고린도후서 10:5

참고 말씀 / 마가복음 9:45~47

교육 내용 / 예수님께서 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야 했는지 그 영적 의미를 알게 한다.

왕관은 왕의 위엄과 고귀한 신분을 표시해 줍니다. 꼭 왕관이 아니더라도 군대에서는 장성들이 위엄과 권위를 표시하는 모자를 쓰고, 학교에서는 학위를 받을 때 학위모를 씁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체 가장 윗부분인 머리에 관을 씌우는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길고 단단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변연히 알면서도 민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이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힌 후 억센 가시 줄기를 엮기설기 엮어 머리보다 작게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눌러 씌우지요. 이때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파고드니 예수님의 얼굴은 온통 피로 낭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통당하며 피를 흘리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음성을 들어 나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자 곧 죄를 받게 되었지요. 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 사단은 지금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기억 장치가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느낌과 함께 입력하는데, 이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을 혼의 작용을 통해 되살려 내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장한 환경과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달라 입력된 지식도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웠어도 각자가 어떤 느낌과 함께 받아들인느냐에 따라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람의 지식과 생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남을 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준다고 하셨지요(마 23:12).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이라 하고, 이와 반대되는 비진리의 생각을 육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사람의 육적인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요. 따라서 사람의 모든 이론을 깨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진리를 좇아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고후 10:5).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비진리 생각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요일 2:16).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적인 생각으로 인해 빛어지는 모든 불의, 불법,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좋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경기에 출전하면 참가자 전원에게 주는 참가상이 있고 금, 은, 동메달 등 순위에 따라 주는 상들이 있지요. 이처럼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한 대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참가상을 주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싸워 버리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상입니다.

또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벧전 5:4),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모든 악을 버리고 성결한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약 1:12 ; 계 2:10).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성결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딤후 4:8). 또한 금 면류관이 있는데(계 4:4), 이는 성결하고 온 집애 충성하는 믿음, 영원히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수많은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큼 죄를 싸워 버리며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려 주신 사랑을 믿기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피하지 않고 단정히 행하며(롬 13:13~14),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갈 5:16),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좋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으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면 가장 좋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 2.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처형장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쇠로 된 정을 쥐고 또 다른 군병은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구령에 맞추어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쇠못이 양손과 양발을 꿰고 들어오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하신 이유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을 통해 마음에 죄악을 심으면 손과 발을 움직여 죄를 범하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막 9:45~47).

오늘날 사람들이 손과 발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험기가 나면 폭력을 행하며, 도적질과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유 없이 살인하고 총을 난사하며 방화를 일삼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행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손과 발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라 버리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천국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탐심이 일어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간음도 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 버리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히 죄를 경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진리로 마음을 지키며 늘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사람의 ( )에서 오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이다.
  - ② 우리에게 좋은 ( )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2.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하신 섭리는 무엇일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 육신의 정욕 : 육신을 좇아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이다. 사람의 마음에 미움, 교만, 혈기, 게으름, 간음 등 죄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나면 육신의 정욕이 나온다.
- 안목의 정욕 :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이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육신의 정욕을 유발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된다.
- 이생의 자랑 : 현실의 모든 향락을 좇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을 말한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http://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http://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http://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http://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http://www.urimbooks.com) ☎ 02-818-7241)

##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 1대대교구장: 이미경

#####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56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 2대대교구장: 조대희

#####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3대대교구장: 이미영

#####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 부설 기관

###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없습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덴마크어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일곱 교회」 말레이시아어, 「나의 삶 나의 신앙」 아르메니아어, 「권능」 네덜란드어, 「깨어라 이스라엘」 체코어, 「십자가의 도」 크로아티아어, 「치료하는 여호와」 인도네시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영어(713호), 중국어(588호), 힌디어(48호), 말레이시아어(1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 제1차 임시 당회가 3월 20일 주일 저녁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3월 은사집회가 25일 금요일 철야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접수는 3월 14일(월)부터 3월 20일(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은사집회를 위한 환자 랜선 기도회”가 14일(월), 21일(월) 오전 11시에 GCN방송으로 실시간 방영됩니다(준비찬양 오전 10시 50분).  
※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 GCN방송 송출실 장비 교체로 인해 3월 14일(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정규 방송이 일시 중단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제2회 가족찬양대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일시: 5월 15일(주일) 대예배 후  
※ 참가자격: 온가족 복음화된 가정(지교회 포함, 2인 이상)  
※ 시상: 대상, 금상, 은상, 인기상 각 1팀(상금, 상패 수여)  
※ 예선 서류접수 및 기간: 교회 홈페이지, 2월 27일(주일) ~ 3월 13일(주일)  
※ 예선 심사 후 영상접수: 3월 18일(금) ~ 3월 29일(화)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거나 기획실(☎ 02-818-7234) 또는  
예능위원회(☎ 02-818-720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교회 소식**

광주만민교회(담임 박형렬 목사) 창립 26주년 기념예배

※ 일시: 3월 13일(주일) 오후 3시

※ 강사: 강승표 목사

구미만민교회(담임 최제수 목사)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 일시: 3월 20일(주일) 오후 3시

※ 강사: 최제수 목사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광주만민교회 남선교회(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 주요 프로그램 안내

3/13 일

- 00:00 - '믿음의 분량 19' 이재록 목사
- 05: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1' 이수진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68' 이재록 목사
- 18:30 - '참된 일꾼' 임학영 목사

3/14 월

- 01:00 - '선한 청지기의 마음 2'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69'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11' 이재록 목사
- 11:00 - 은사집회를 위한 환자 랜선기도회(생방송)
- 13:00 - '영적인 어머니아이' 이수진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127' 이재록 목사

3/15 화

- 01:00 - '사람이다 스러야 할 몸의 행실 1' 이수진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12' 이재록 목사
- 10:20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11' 이재록 목사
- 14:00 - '믿음의 분량 20' 이재록 목사
- 15:00 - 성경 읽기
- 18: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43

3/16 수

- 00:00 - '믿음의 분량 22' 이재록 목사
- 01:00 - '3차 영혼속 5'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26'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6:00 - '사랑장 13' 이재록 목사
- 13:00 - '공간과 차원 2' 이재록 목사
- 15:30 - '선 12'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71'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18' 이재록 목사

3/17 목

- 01:00 - '욥기 강해 3'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72'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14' 이재록 목사
- 10:20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3' 이재록 목사
- 13:00 - '공간과 차원 3' 이재록 목사
- 14:00 - '믿음의 분량 22' 이재록 목사
- 19:40 -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수진 목사
- 22:20 - 성경 읽기

3/18 금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15'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14' 이재록 목사
- 14:00 - '믿음의 분량 23' 이재록 목사
- 15:30 - '선 14'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73' 이재록 목사
- 20:40 - 인도 연합대성회 1

3/19 토

- 07:05 - '창세기 강해 74' 이재록 목사
- 10:00 - '참된 가치'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15'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59' 이재록 목사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영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www.manmin.org  
m.manmin.org  
www.gcntv.org  
m.gcntv.org

- Mar. 13(Sun.)

(Galatians 3:3)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 Mar. 14(Mon.)

(Galatians 4:6)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 Mar. 15(Tue.)

(Galatians 4:19) "My children, with whom I am again in labor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 Mar. 16(Wed.)

(Galatians 5:19) "Now the deeds of the flesh are evident, which are: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 Mar. 17(Thu.)

(Galatians 5:20) "Idolatry, sorcery, enmities, strife, jealousy, outbursts of anger, disputes, dissensions, factions"

- Mar. 18(Fri.)

(Galatians 5:21) "Envy, drunkenness, carousing, and things like these, of which I forewarn you, just as I have forewarned you,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 Mar. 19(Sat.)

(Galatians 5: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 금주의 성경구절

3월 13일(주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갈 3:3)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월 14일(월)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갈 4:6)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3월 15일(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갈 4:19)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3월 16일(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갈 5:19)

3월 17일(목)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갈 5:20)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3월 18일(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 5:21)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3월 19일(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 5:22)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후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육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내 영혼이 잠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قام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야를 나뉘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여호와/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스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에베 설교 모음 1

많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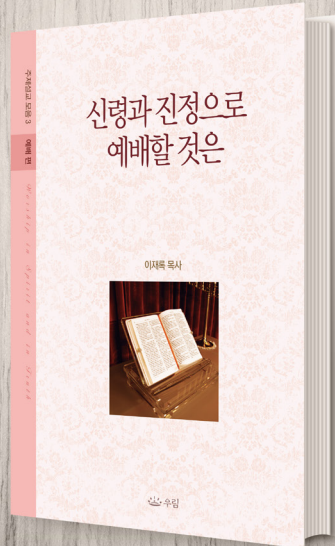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 3월 추천도서



URIM BOOKS

#홈페이지 : www.urimbooks.com #페이스북 : facebook.com/urbooks #블로그 : blog.naver.com/ur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계편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성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